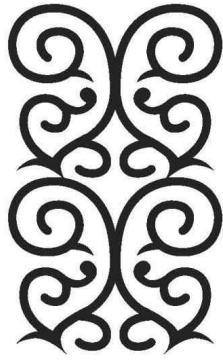


【부록】



종합토론문





【부록】



종합토론문

1. 머리말

공동체의 정체성과 역할에 대하여 발표함에 이어 각 나라에서의 공동체의 역할 및 실체를 해명하는 종합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근대 이후에 대부분의 민속들이 탈맥락화, 재맥락화하는 양상을 맞이하게 됨에 따라 공동체와 무형문화유산의 불가분한 관계 속에서 그 변화를 논의하였다. 전체 토론은 정형호 사무총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였다. 토론자로는 김종대 교수, 한양명 교수, 정연학 교수, 함한희 교수가 참여하였다.

2. 공동체의 의미와 변화 양상

베트남의 도 티 탄 투이 연구원은 베트남의 경우 전쟁 이후 전통의 단절로 인하여 공동체가 완전히 붕괴되어 의례자체가 변화한 점을 언급하였다. 과거에는 남성들만이 줄다리기 축제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2006년부터 여성, 즉 외부참여가 가능해졌다고 한다. 그 이외에도 환경이 바뀌게 되면서 일부 의례들이 단절이 된 경우도 있음을 언급하였다. 줄다리기를 행하는 공동체에 관하여, 1990년대에는 조합장이 축제의 의장이 되었지만 이후에는 축제 운영위원회가 만들어졌고, 운영위원회는 과거 원로들이나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형식으로 축제가 이끌어졌다고 한다. 그러나 무형문화유산이라는 것은 성격 덕분에 조건들이 달라지면, 변화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캄보디아의 시온 소페리아트 교수는 줄다리기는 각 지역 안에서 다양성이 나타나지만, 공동체성이라는 커다란 줄기는 같다고 하였다. 풍농 풍년제와 연결이 되며 공동체의 번영을 기원하면서 행사 전후 지내는 의례와 같은 기본적인 코드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예시하였다. 캄보디아의 대량의 학살로 인하여 줄다리기 의례가 바뀌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허용호 교수는 한국의 줄다리기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줄난장에 관련된 기억이나 계보를 종합해 볼 때 20세기 초반을 넘어가지 않는다고 하였다. 줄난장에 관련된 이 논의에는 큰 포섭이 깔려있는데 바로 시장민속, 시장전통에 관한 논의라고 하였다. 별신굿이 변화한 양상이 장별신이듯이 줄 난장도 이와 비슷하게 보는 관점이 있으며 시장을 열리기 위한 전제 조건이 하늘과 인간 간의 소통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고려하여 줄 난장의 변화 및 변질과 같은 후대에 일어나는 현상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하였다.

필리핀의 노마 레스피시오 교수는 필리핀의 특정 공동체에 주목하였다. 이들은 모두 농경사회 기반의 공동체들이며, 농경사회가 하천이 잘 보전되는 것에 좌우하기 때문에 공동체들은 환경을 보전함으로써 자신들의 농경사회를 보호하고, 줄다리기 의식이 잘 보호할 수 있음을 밝혔다. 유산보호의 어려움 중 하나는 문바퀴라고 부르는 주술자, 의례를 주관하는 주술자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을 수행하려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어 다소 폐쇄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였다. 필리핀의 경우 공동체만이 연행에 참여할 수 있고 여성과 아동은 배제가 되고 있는데 이는 국가 및 지역별로 전승의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중앙대학교 김종대 교수는 지정된 지역만이 무형유산을 소유함으로써 비롯되는 문화의 권력화 및 잘못된 편차, 왜곡된 오류의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였다. 공동체와 관련된 부분에서 줄다리기는 원래 주술성과 의례성이 함유된 축제인데 근래에는 형식성과 축제성만 강조하는 부분으로 변화된다고 보았다. 현재 전승되는 모습이 무형유산으로서 변화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공동체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원론적인 공동체에 있어서 동원인력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공동체 범위 설정의 질문을 던졌다. 영산의 경우 학생들을 동원하고 용인은 군인을 동원하는 점을 언급하면서, 실제 줄다리기 참여자만을 공동체로 국한시키며, 본질이 훼손되고 있지 않느냐며 지적하였다.

이에 대하여 박상미 교수는 지정유산에만 초점이 맞추는 경향은 비지정유산에 대한 관리의 숙제를 남긴다고 하였다. 공동체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면, 원론적인 이야기가 있지만, 연행, 전승의 축제, 또는 관심이 있는 사람 모두를 공동체로 포함하는 광범위한 정의에 동의한다고 하였다.

3. 줄의 상징적인 의미 및 지역별 사례

정현학 교수는 줄이 가지는 상징적 의미가 무엇인지, 특히 캄보디아에서 줄을 자르는 행위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접근이 줄다리기의 관심이 시작될 수 있다고 하였다. 전파론적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바다 근처에서 줄을 당기는데, 혹시 물이 없는 순수한 산간 지역에서도 줄을 당기는 사례가 있는지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시온 소페리아트 교수는 캄보디아의 줄다리기는 어떤 동물을 상징하지는 않고, 줄 자체라고 하였다. 여러 차례 줄다리를 할 수 있지만, 3번 줄을 당기고 줄을 끊는데 이는 다른 용이나 뱀을 상징하는 것은 아니고 시작을 알리는 것이라고 하였다. 시작이면서 끝이자,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면서 새로운 경작의 계절을 알려주면서 신년의 시작이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태국의 추츠차이 고마라똥 교수는 태국의 경우 줄다리기는 모든 사람이 참여하고 태국 어디에서나 레저, 운동, 재미를 위해서 아무나 할 수 있지만 몇몇 지역에서 지역의 정체성을 가진 줄다리가 진행되고 있음을 소개했다. 독특한 줄다리기 방식으로서 사람과 코끼리간의 줄다리기는 코끼리로 유명한 명소에서 사람과 코끼리가 줄다리를 하며 지역 주민들에게 알림으로써 공동체의 결속을 다짐과 동시에 홍보효과를 거둔다고 하였다. 태국은 필리핀과 달리 변화에 따라 새로운 놀이를 창출하고 선거에 활용이 된다는 점 또한 언급하였다.

필리핀의 노마 레스피시오 교수는 필리핀에서는 줄다리를 유지해서 하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다고 하였다. 이푸가오같은 경우에는 3개의 공동체가 참여를 하고, 지류가 만나는 지점에서 줄다리기 의례를 진행하는데, 하나의 팀이 강 쪽이고 그 반대편에, 또 그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경계선을 넘지 않는다고 하였다. 줄다리를 하는 것은 중립적이며, 팀의 위치라는 것은 마을을 경계를 나타냄을 밝혔다. 경계를 넘어가면 줄다리기에서 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4. 줄다리기 보호 방향

줄다리기의 본질적인 정신을 바탕으로 놀이와 의례를 함께 전승하는 방향에 대하여 한양명 교수는 현재 한국의 줄다리기의 의례가 전통적이라고는 생각하면 안되고 상당히 무대화된 것이므로 정부 및 사회단체 연구자들의 인위의 개입에 대하여 신중성을 당부하였다.

김종대 교수는 의례는 도시 민속에서 신화적인 부분이라고 하였다. 도시민들은 심리적으로 개인주의와 폐쇄성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상처를 부분적으로 극복하고 싶은 장치가 주술성이며, 의례가 해소의 역할을 한다고 한다. 그러나 오늘날 의례가 권력화된 상황으로 변하고 있음을 우려했다. 산신제 같은 경우 국회의원을 부르거나 선거에 이용하기도 하고, 수도권에서 농산물을 전략적 판매를 위해 축제를 벌이기도 함을 지적하였다.

추가 의견으로서 신수식 영산줄다리기 전수조교는 영산줄다리기가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음을 밝히며 지역차원에서 대중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시급하다고 하였다.

나경수 전남대 교수는 4개국의 줄다리기의 정의에 대하여 색다른 의견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캄보디아의 경우 양쪽에서 나무 막대기를 잡아당기는 형태인데, 양쪽을 잡아당겨 승부를 내는 것이 아니라 직선 운동을 원운동으로 바꿔 바다를 휘젓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줄다리기가 가지는 의미가 캄보디아의 줄다리기의 경우 바다에서 왔다면 놀이가 아닌 노동이 아닌지에 대한 의문을 시작으로, 줄로 내는 승부라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 줄다리기의 개념을 다시 한 번 바라보라고 하였다. 즉, 수단적으로 잡아끈다는 것이 중요하는 것이 아니라 줄이라는 것으로 승부를 낸다는 것이 보다 본질적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박성용 유네스코아태센터 정책사업본부장은 유네스코 공동등재에 관하여 등재의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6개 도시, 4개국의 공동체들이 지정작업에 참여함으로써 긍정적인 측면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공동등재는 향후 4개국 그 이상이 될 수 있고 아시아의 전통문화를 더욱 강화할 것을 기대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번의 지정작업이 유연하고 포괄적으로 인식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공동체 개념과 의례가 중요하며 앞으로의 과제로서 줄다리기의 활성화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좌장 정형호 교수는 토론을 정리하며 공동체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현대사회에서의 공동체의 실체는 상당히 모호하다고 하였다. 줄다리기의 경우 참여자가 한시적이냐, 지속적이냐, 자의적이냐 타의적이냐, 타지사람이냐 지역사람이냐 등 층위관계가 복

잡하고 다양한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논의는 공유유산으로서의 줄다리기 보호의 시작이자 아시아 비교 연구를 통하여 밝혀낼 중요한 문제라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주최기관을 대표해서 허권 유네스코아태센터 사무총장은 이번 심포지엄의 키워드는 첫째로 변화에 대한 것이며, 사전에 변화를 관리할 것을 강조하였다. 둘째로 공동체와 무형유산의 관계에 관하여, 지역사회로의 접근과 고전철학과 같은 사람중심의 문화의 지속가능성을 당부하였다.

심포지엄을 종료하기에 앞서 허권 사무총장은 당진시청, 문화재 보유자, 여러 교수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폐회를 선언하였다.